



2016 정기총회

제16대 김경재 중앙회장 당선

숄 신임 회장 “100만 정예회원 양성... 통일선봉대로” 다짐

당선증 받고 3년 임기 시작

한국자유총연맹 제16대 중앙회장에 김경재(金景宰) 전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이 선출됐다.

연맹은 2월 25일 서울 자유센터 야외강당에서 전국 대의원 39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결과 김경재 후보(기호 1번)가 유효투표 368표 중 205표를 얻어 당선 의예를 안았다. 정광영 선거관리위원장은 김경재 당선인에게 제16대 중앙회장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경재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새 회장으로서 100만 정예회원 양성에 주력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시스템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론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연맹이 자유통일의 선봉대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회장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3년이다.

김경재 신임 회장은 1942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미 버지니아신학교를 졸업하고 미 펜실베이니아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제15·16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2016년도



◇김경재 신임 회장이 2월 25일 당선 직후 전국 대의원들 앞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시론 | 평화협정보다는 ‘비핵화’가 먼저다 2면

“북한 핵 폐기하고 자유통일로...”

본부 및 수도권 2000명 ‘3·1절 국민대회’ 참가

연맹은 1일 서울광장에서 애국단체총협의회, 나라사랑기독교인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핵폐기 3·1절 국민대회 및 구국기도회’에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경재 중앙회

장, 윤규식 사무총장 등 본부 임직원과 서울·인천·경기지방간부, 회원 등 2000여 명이 애국단체 회원들과 함께 자리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편 김경재 회장은 김무성 새

누리당 대표의 격려사에 이어 ‘올바른 대북정책과 국론통합’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김 회장은 연설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인 행태를 엄중히 비판하고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존과 안보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독재체제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핵을 저지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국론을 통합해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북한에 자유와 평화를 전파시키는 대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마다

커버스토리
북한 '장거리 핵과 사드 정치학'

파워인터뷰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시사초점
위기의 개성공단

자유는단
3·1 독립정신은 '통일'로 완결된다

03
2016 vol.80